

평화선언 찬반 논란, 종단 쇄신 불씨 되나

도법 스님과 법승 스님 각각 공개편지 통해 종단 쇄신 촉구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이하 종교평화선언)’을 두고 찬성과 반대 진영에서 대표자들이 각각 공개편지를 발표했다. 글에는 종교평화선언 관련 찬반 당위성 외에 어떤 아래서 잠자던 종단 문제점들이 기록돼 있어 실질적인 종단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이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이하 선언)’ 발표 보류와 재검토를 당부하는 유시를 내린 가운데, 조계종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12월 7일 중정스님의 뜻을 묻는 공개편지를 발표했다.

도법 스님은 ‘종교평화실장제 보내는 편지’ 제하의 글에서 “나름대로 길을 열어보려고 궁리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접근할 길이 없어 불가피하게 공개질의 형식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선언 발표 유보와 관련해 중정스님을 예방하러 했으나, 중정

예경실(실장 선장·해인사 주지)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곤란하다’는 이유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도법 스님은 “중지 정신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중정예하의 뜻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해답을 찾을 길이 없었다”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불교계에 있었던 문제들을 예로 들어 질문을 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중정스님은 선언에 대해 왜 중지를 잃을까 걱정된다고 하셨는지 예하의 깊은 뜻을 알려 달라”며 ▷계파정치 ▷총회의원 폭력 ▷비민주적인 종단과 사찰운영 ▷무절제한 고급 승용차 ▷국가권력에의 종속화 ▷세속화 등은 중지정신과 예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야단치지 않는 것인지 그 본의를 물었다.

스님은 “부처님의 출현 이유인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중정·중지를 제대로 배우고 논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초의 본의와 중지의 정신이 지켜지고 실

현되겠나”며 “이번 기회에 ‘총무원장을 위시로 한 모든 종도들이 중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겹겹히 배우고 토론하고 대화하도록 파사현정의 죽비로 내려치십시오’라고 청해달라”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부디 국민화합과 사회통합, 불교의 위대한 전통이 21세

종단 종속화·세속화 비판과

쇄신 위한 총무원장 결단 촉구

한국불교 중흥 여부 달려 있어

기에 빛나도록 하는 ‘선언’을 완성시켜 결사의 첫걸음이 당당하고 활기차게 디딜 수 있도록 명쾌하게 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법승 스님은 8일 ‘총무원장스님과 도법 스님 그리고 전 사부대중에게 공개 편지’ 제하의 글을 발표했다.

스님은 글에서 “결사추진본부 총재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의 글은 총무



중정 스님께 공개편지를 발송한 도법 스님(사진 좌)과 종단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법승 스님(사진 우)

원장스님까지도 중정예하에 대한 불충 그 이상이라는 결론도 가능하다”며 종단 안정을 위한 총무원장스님의 결단을 촉구했다.

법승 스님은 “도법 스님이 지적한 일련의 사항은 중정예하가 아닌 총무원장스님께서 처리할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종단 지도부의 도덕성 재고 ▷종단의 개혁의지 천명과 보신주의 타파 ▷구호 뿐인 종단발전



계획안의 쇄신 ▷계파정치 타파 ▷종단의 대정부 견제기능 부활 등을 주장했다.

도법 스님과 법승 스님의 글 모두 조계종의 문제점을 담고 있다. 도법 스님의 중정스님에 대한 불경 시비 등을 차치하고라도 이에 대한 총무원의 대응에 자성과쇄신 5대결사를 비롯한 한국불교중흥의 미래가 담보된 것만은 분명해 됐다.

조동섭·박기범 기자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㉔

소정방의 낙서, 후대를 혼돈케 하다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扶餘 定林寺址 五層石塔) 국보 제9호



부여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 한 구가 있다. 국보 제9호 정림사지 오층석탑이다. 이 석탑은 한때 ‘평제탑(平濟塔)’이라 불리는 수도를 겪어야만 했다. 이유는 신라와의 연합군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大唐平濟國碑銘)’이라는 뜻의 글귀를 탑에 새겨 놓았기 때문이다.

1981년 정림사지에 대한 발굴이 시작되면서 석탑 주변에 발굴 조사한 결과 가람배치의 전모가 밝혀졌고, 일찍이 석탑 주변에서 ‘太平八年戊辰定林寺(태평8년무진정림사)’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가 출토돼 고려 초기에는 정림사라고 불렀던 것이 확실해 밝혀졌다. 그 뒤 이 석탑을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이라 부르게 되었다. 태평8년은 1028년(현종 19)으로 사찰을 크게 중수하였던 해로 추정된다.

이 석탑은 미륵사지석탑(彌勒寺址石塔, 국보 제11호)과 함께 백제석탑이 목감의 변안(繡案)이라는 근거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석탑양식의 계보를 정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는다. 기단은 각 면의 가운데와 모서리에 기둥돌을 끼워 놓았고, 탑신부의 각 층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워놓았는데,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를 볼록하게 표현하는 목조건물의 배흘림기법을 이용하였다. 얇고 넓은 지붕돌은 처마의 네 귀퉁이에서 부드럽게 들려진 단아한 자태를 보여준다.

勒寺址石塔, 국보 제11호)과 함께 백제석탑이 목감의 변안(繡案)이라는 근거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석탑양식의 계보를 정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는다. 기단은 각 면의 가운데와 모서리에 기둥돌을 끼워 놓았고, 탑신부의 각 층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워놓았는데,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를 볼록하게 표현하는 목조건물의 배흘림기법을 이용하였다. 얇고 넓은 지붕돌은 처마의 네 귀퉁이에서 부드럽게 들려진 단아한 자태를 보여준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불교의례 교육하는 전승원 문 연다

2012년 2월, 특수교육기관 인가...동주 스님 학장

조계종 불교의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학장 동주)’이 문을 연다.

이에 따라 조계종 의식교육기관은 일상생활의식과 불공시식을 기초교육하는 여산작법학교와 이를 심화한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으로 이원화했다.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은 여산·여정 동주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조계종 특수교육기관으로 2012년 2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교육장은 동주 스님이 주석하는 서울 흥은사에 마련되며 학제는 전문과정과 연구과정 각 2년제, 기능과정 1년이다.

학과목은 ▷상주권공 ▷불교의식장단 ▷불교무용 ▷불교의식연구 ▷한국불교의식 ▷수륙작법 등이 다. 조계종 불교의식 한글화에 맞춰 한글의식 교육도 진행된다.

교수사는 여정 동주 스님과 정오 스님(상주권공 등, 영산재 이수자), 현준 스님(불교무용, 영산재 이수자), 도경 스님(불교무용, 영산재 이

수자), 헤일 스님(의식 장단 및 이론, 불찬법음연구소장) 등이다. 전승원은 학교 운영을 위한 교문도 다수 위촉할 예정이다.

전승원은 “전통불교의례를 보존 전승하고, 올바른 수록재를 재현해 불교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2월 26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로 면접은 2월 13일 진행된다. 합격자는 2월 20일 발표된다. 전문과정 졸업자는 3급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조계종 특수교육기관으로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졸업장을 받는다. 연구과정 졸업자는 이수증을 수여하며 조계종이 아닌 타종단 스님들도 청강생으로 수할 수 있다.

동주 스님은 “불교의식의 대부분이 파생된 수록재의 의식을 체계화하며 실제 재를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02)2658-3100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승려복지제도 요양 지급 시작

화성 모회원 대원 스님 종단 첫 수혜자 선정

승려복지제도를 통한 노스님 지원이 시작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영담, 총무부장)는 “11월말 대원 스님이 요양비 지급 신청을 함에 따라 심사를 통해 승려복지 혜택의 첫 수혜자로 선정했다”고 12월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원 스님은 요양급여 자부담금의 50%를 매달 지원 받는다.

대원 스님(세남 96세, 법남 33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2급으로 현재 종단지정 요양원인 화성 모회원(원장 보자)에 1991년부터 입소해 요양중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모회원을 방문해 승려복지 혜택 첫 수혜자인 대원 스님에게 요양비를 직접 전달하고 모회원에서 요양 중인 스님과 재가자 등을 위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월정사·송광사 차기 주지 확정

(정법 스님) (무상 스님)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제21교구 송광사 차기 주지가 정법 스님과 무상 스님으로 각각 확정됐다.

오대산 월정사는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12월 2~4일 주지후보를 등록 받은 결과 현 주지 정법 스님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산중총회는 12월 12일 열리는 선거법 상 단독입후보의 경우 만장

일치로 추대된다.

순천 송광사 차기 주지로는 조계종 법규위원장 무상 스님이 내정됐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은 12월 7일 열린 조계총림 인회에서 무상 스님을 차기 주지 후보로 결정했다. 총림은 방장 권한으로 후보를 총무원에 추천하면 총무원에서 품신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동행’ 사무총장 헤일 스님 임명

결사추진본부 사의 표명 사흘 만에 인사 발령

종교평화선언 유보로 사의를 표명한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전 사무총장 헤일 스님이 사흘 만에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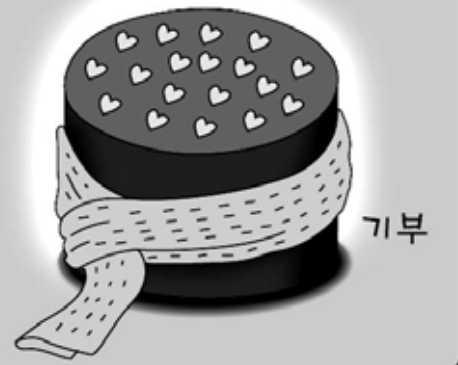
름다운동행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헤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그러나 헤일 스님조차 임명 당일

오전에 통보를 받았을 정도로 이번 인사는 신속히 진행됐다. 단시간 내 결정된 이번 인사를 두고 교계 일각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헤일 스님은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에 임명됐으니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박구원 만평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춥지않은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 비구니 강원의 전통 속에서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여법한 수행자들의 교육도량

동학사 승가대학 · 화엄승가대학원

2012학년도 동학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 **입학자격** :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원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2012년 봄 사미니계 수계자 2차 입방 가능)
- **시험과목** : 면접, 엮불실기,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 (3) 은사스님 추천서 1통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5) 증명사진 2매
- **원서교부** : 동학사승가대학 종무소 및 동학사 홈페이지
- **준비물** : 만의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세면도구
- **원서접수** : 2011년 12월 9일(음11월 15일)~2012년 1월 12일(음12월 19일)
- **시험일시** : 2012년 1월 13일(음12월 20일), 1월 12일 오후 4시까지 도착
- **문의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전화 : 042)825-2570, 팩스 : 042)825-6068

2012학년도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 **전문과정 응시자격** :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구니.
- **특전** : 전문과정 2년 졸업자는 종단 승가대학원령에 의거해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 **모집인원** : 10인 이하(상주 및 통학 가능)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학림 소정양식) 1통
 -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 (3) 은사스님 추천서 1통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5) 승가대학졸업(예정)증명서
 - (6) 수행이력서
 - (7) 학업계획서
 - (8) 사진 2장 (3×4)
- **원서교부** : 동학사승가대학 종무소 및 동학사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11년 12월 9일(음 11월 15일) ~ 2012년 1월 12일(음 12월 19일) (동안거 해제 후 2차 방부 가능)
- **전형일시** : 2012년 1월 12일(음 12월 19일) 오후 1시
- **전형방법** : 면접 및 구술시험
- **준비물** :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 **문의처** : 동학사 종무소 전화 : 042)825-2570, 팩스 : 042)825-6068

동학사 승가대학 ·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
주지 견성 · 선덕 해주 · 학장 법성